

박창식 필사 『잡집』 해제 및 분석

이민규*

<차례>

1. 서론
2. 『잡집』 해제
 - 1) 박창식 소개
 - 2) 『잡집』 소개 및 구성
 - 3) 『잡집』의 교과서적 기능
3. 『잡집』에 실린 창가 노랫말 분석
 - 1) 계몽주의 지향
 - 2) 영토의식과 충군의식의 공존
 - 3) 충군의식의 우위와 그 이유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박창식 필사 『잡집』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잡집』은 속표지의 ‘丹主 朴昌植’ 표기로 보아서 박창식이 필사하고 편찬했다고 추정된다. 또한 이 『잡집』은 박창식이 대성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들의 교과서들에 관심을 두면서, 필사되어 편찬되었다고 추정된다. 이 『잡집』은 『음악의 해제』에서 문답식의 대화법으로 음악 이론을 교육시키는 내용을 갖추며, 교과서적 기능도 갖추고 있었다.

이 『잡집』은 여러 창가들을 담고 있으며, 그 중에는 대성학교의 교가인 <행보가>도 담겨있다. 『잡집』은 <행보가>, <군인가>, <권학가>, <전진가> 등을 통해서 군대식 교육과 계몽주의 교육을 함께 함양시키고자 했다. 한편 이 『잡집』은 영토의식을 고취시키는 <대한훈>, 충군의식을 고취시키는 <건원절경축가>도 담고 있다. 이 『잡집』에 실린 5개의 <애국가>들을 보면 충군의식이 영토의식보다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잡집』이 충군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잡집, 박창식, 안창호, 대성학교, 창가

1. 서론

본고는 창가집인 박창식 필사 『잡집(雜集)』¹⁾을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박창식 필사 『잡집』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잡집』은 조선 일보의 한 기사²⁾에서 소개되었고, 이민규의 연구³⁾에서 조금이나마 언급되었다. 하지만 『잡집』이 체계적으로 분석된 적은 없다.

국권 피탈 이전에 국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편찬된 창가집이자 교과서로는 1906년에서 1910년경의 『심상소학창가(尋常小學唱歌)』, 『신편교육창가집(新編教育唱歌集)』, 『보통교육창가집(普通教育唱歌集)』이 있다. 그런데 이 교과서들은 모두 일본의 창가 교과서들을 그대로 옮겨왔다.⁴⁾ 즉 이 교과서들을 분석하면 창가가 어떻게 일본으로부터 유입되었는지는 알 수 있지만, 창가가 어떻게 신문 같은 동시기의 다른 국문 시가 매체와 함께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는 알기 힘들다. 더불어 이 교과서들에는 계몽주의를 담은 창가들이 실려있지 않기에, 국권 피탈 이후의 항일

1) 박창식, 『잡집』, 필사본, 연대미상.

2) 유석재, 『구한말 애국가 6종 새로 발굴』, 『조선일보』, 2013년 8월 15일.

3) 이민규, 『근대 시가에 나타난 국가 표상 변천 과정 - 애국가, 의병가사, 애국계몽가사, 항일가요 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71, 85, 89쪽; 다만 이민규의 연구는 『잡집』에 관한 오류들도 담고 있으므로, 본고는 이 오류들을 정정해나가자 한다.

4) 송방송, 『증보 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07, 643~644쪽.

가요를 담은 창가집들과의 접점을 찾기도 힘들다.

따라서 본고가 『잡집』을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목적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 번째, 『잡집』에 관한 분석은 창가가 어떻게 국권 피탈 이전부터 사립학교에서 교육되었는지를 알려준다. 두 번째, 『잡집』에 관한 분석은 창가가 어떻게 신문 같은 동시기의 다른 국문 시가 매체들과 영향을 맺었는지를 알려준다. 세 번째, 『잡집』에 관한 분석은 국권 피탈 이전의 창가집들이 국권 피탈 이후의 항일 가요를 담은 창가집들과 어떻게 연관되었는지를 알려준다. 특히 『잡집』은 국권 피탈 이후에 창가집이자 교과서로 쓰이던 『최신창가집』과 유사한 음악 교육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이는 『잡집』이 국권 피탈 이전의 창가 가창 양상과 국권 피탈 이후의 창가 가창 양상을 연결시켜주는 주요한 자료임을 알려준다.

2. 『잡집』 해제

1) 박창식 소개

『잡집』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잡집』의 필사자이자 편찬자인 박창식에 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창식은 요절하여 활동이력이 짧다보니, 여타 기록에서는 어떠한 인물이었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⁵⁾ 그나마 박흥식을 다룬 기사에서, 박창식을 박흥식의 형으로만 언급할 뿐이다.⁶⁾ 박흥식은 국권 피탈 이후에 화신백화점을 운영한 사

5) 한자까지 똑같은 동명의 다른 박창식은 김동삼(金東三)과 함께 체포되어 형을 받았으며, (김준엽 · 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4, 청계연구소, 1986, 188쪽.) 그 후에도 무력 항쟁을 계속하다가 1929년에 전사했다. (『독립유공자 공적 조서』 7810) 하지만 『잡집』을 필사한 박창식은 독립 운동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910년에 죽었기에, 관련 기록을 찾기 힘들다.

업가이자 친일파였다.⁷⁾ 박흥식은 안창호를 보호하기도 했는데, 형인 박창식이 안창호가 설립했던 평양 대성학교와 교류했던 인연 때문으로 보인다.

위낙 관련 기록이 없다보니 박창식이 대성학교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박창식 자신이 남긴 『일기장(日記帳)』을 참조해보는 수 밖에 없다. 이 『일기장』에는 경술년 8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으며(庚戌八月一日爲始),⁸⁾ 10월 12일을 마지막으로 끝나있다.⁹⁾ 경술년은 1910년으로 박창식이 죽은 해로서, 이 『일기장』은 박창식이 죽기 얼마 전에 남긴 기록이다.

(二) 大成學校生徒玄錫根氏가施行爲避病次로기만氏¹⁰⁾를同伴 하야 左右에來 하디¹¹⁾

(二十三) 大成學校 〃 監張膺震氏에게致送 하디¹²⁾

(六) 普通學校에서日語冊을謄書 하느際에大成學校生徒一石이來 하거
를¹³⁾

6) 박흥식의 생전 증언에 따르면 박창식은 자신보다 11년 먼저 태어나서 19세에 죽었다고 한다.(이후, 「박흥식 "박정희에게 100만 신도시 개발 허가받아"」, 『중앙일보』 2006년 10월 23일.)

7)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친일인명사전』 2, 민족문제연구소, 2009, 157~161쪽.

8) 박창식, 『일기장』, 필사본, 1910, 3쪽.

9) 『일기장』 61쪽에 ‘十月一’이라고 표기되어 10월 1일임을 밝히고 있으며, 72쪽에 ‘十二’라고만 적혀 있다.

10) ‘金基萬’이라는 인물이 바로 뒤에 언급된다. 박창식의 지인으로 보인다.

11) 박창식(1910), 앞의 책, 22~23쪽.

12) 박창식(1910), 앞의 책, 50쪽.

13) 박창식(1910), 앞의 책, 28~29쪽.

(二十五) 平壤大成學校漢文教授羅一鳳氏에著호平常時往來之式을謄書
호다¹⁴⁾

『일기장』에 기록된 박창식의 일상은 박창식이 대성학교 인물들과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보여준다. 박창식은 대성학교 학생인 현석근의 병문안을 가기도 하며, 대성학교 교감인 장응진과 교류하기도 한다. 또한 박창식은 보통학교의 일본어 교과서를 옮겨적다가 대성학교 학생인 일석의 방문을 받기도 하며, 대성학교의 한문학 교수인 나일봉의 저서를 옮겨적기도 한다. 박창식은 여러 교과서들에 관심을 가졌고, 관심을 둔 교과서들을 옮겨적기도 했다.

한편 박창식의 『일기장』 곳곳에 ‘夜學에往參호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야학교를 방문한 날을 따로 세기 힘들 정도로 박창식은 거의 매일 야학교를 방문했으며, 그래서 『일기장』에도 거의 매일 ‘夜學에往參호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박창식은 야학교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야학교를 설립할 계획에 관여하기까지 했다.

(二十九) 夜學校設立事를相議호后에會館에去호야票을買호야喫하고
遂啟호다¹⁵⁾

右一篇綱領

事業部 事業은組織會社를進推호라고極力周旋호事

夜學校를設立호事

夜學校를設立호后廣達夜學校와聯合호事

夜學校校監을被位호事

14) 박창식(1910), 앞의 책, 14쪽.

15) 박창식(1910), 앞의 책, 19~20쪽.

..... 文學部 論說이六次要唱歌가一次요律이十七次이니라¹⁶⁾

박창식은 1910년 8월 29일에 야학교 설립 방안을 상의했으며, 그 방안으로 보이는 기록이 일기장 뒤에 실려있다. 이로 보아 박창식은 야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제반 자료로서 여러 교과서들을 필사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박창식은 자신이 설립할 야학교의 ‘文學部’에서 ‘唱歌’를 제일 앞세워 교육시켜야한다고 말한다. 박창식에게 창가는 음악이자 문학으로서, 학교 교육의 중심 과목이어야만 했다. 이로 보아 박창식이 『잡집』을 필사하고 편찬한 목적도 분명해보인다.

2) 『잡집』 소개 및 구성

『잡집』은 필사본 1책으로 총 72면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겉표지와 속표지를 제외한 본문은 64면이다. 『잡집』의 종이는 가로 22.3cm, 세로 15.6cm이다. 속표지에 ‘丹主 朴昌植’라는 표기가 있는데, 이로 보아 필사자이자 편찬자가 박창식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잡집』 본문 곳곳에 찍힌 ‘朴昌植信’도 이를 증명해준다.

『잡집』의 겉표지에는 ‘一 現行有名歌曲’, ‘二 金源極氏演說’, ‘三 各種文字類聚’라는 표기가 있으며, 이 표기는 『잡집』이 총 세 대항목들로 나뉘져있음을 알려준다. 『첫 번째 현행유명가곡(一 現行有名歌曲)』에는 이 잡집이 편찬되던 시기에 가창되던, 계몽주의를 담은 창가들이 실려있다. 『두 번째 김원극씨 연설(二 金源極氏演說)』에는 김원극이 연설했던 문장이 남아있다. 『세 번째 각종 문자유취(三 各種文字類聚)』에는 박창식이 여기저기서 긁어모은 한문 문장들이 실려있다. 『잡집』에는 창기뿐만

16) 박창식(1910), 앞의 책, 73~76쪽.

아니라 다른 기록들도 함께 실려있지만, 『잡집』이 창가집 용도로 편찬되었음을 분명해보인다. 『잡집』의 속표지를 보면 ‘妙歌彙集’이라고 책명이 다르게 표기되어있다. 이 ‘妙歌彙集’에서 ‘妙歌’는 창가를 의미하며, ‘彙集’은 모음집을 의미한다. 이 ‘妙歌’라는 단어는 조선시대의 기록과 근대의 기록 양쪽 모두에서 일관된 용례를 찾기 힘들다. 조선시대에 이식(李植)이 지은 한시 ‘가야금 반주 맞추어 묘한 노래 들을 텐데(調箏按妙歌)’¹⁷⁾를 보면, 이 ‘妙歌’라는 단어가 묘한 분위기의 노래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한편 근대에 쓰인 기사 『覺皇寺 ; 馬鳴大師와 妙歌舞(金泰治)』¹⁸⁾를 보면, 이 ‘妙歌’라는 단어가 불가(佛歌)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妙歌’는 특정 노래를 지칭하기보다는 단어 사용자에 따라서 그 의미도 달라진다. 따라서 이 『잡집』에 쓰인 ‘妙歌’라는 단어는 이 책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창가를 가리키며, 이 『잡집』에 쓰인 ‘妙歌彙集’이라는 단어는 박창식이 『잡집』을 창가집으로서 의도하고 편찬했음을 알려준다.

이 『잡집』은 겉표지에 표기된 대항목뿐만 아니라, 여러 소항목들로도 나누어져있다. 이 소항목들의 명칭들은 겉표지나 속표지가 아니라, 본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본문 안에서 표기된 소항목들의 명칭들에 따라서, 『잡집』을 소항목들로 분류해보자면 아래 표와 같다.

| 대항목명 | 소항목명 | 쪽수 ¹⁹⁾ |
|---------------------------|----------------|-------------------|
| 첫 번째 현행유명가곡 (一 現行有名歌曲) | 천군천사찬송(天軍天使讚頌) | 1 |
| | 목자가(牧者歌) | 1~2 |
| | 권학가(勸學歌) | 2~3 |
| | 애국가(愛國歌) | 3~5 |

17) 『택당집(澤堂集)』 속집 권1.

18) 『동아일보』 1933년 2월 19일.

19) 본 연구자가 연구 상 편의를 위해서 표지를 제외하고 임의로 숫자를 매겼다. 면수는

| | | |
|----------------------------|-------------------------------|-------|
| 첫 번째 현행유명가곡 (一 現行有名歌曲) | 감동가(感動歌) | 5~6 |
| | 추수가(秋收歌) | 7 |
| | 애국가(앞과 동명) | 8~10 |
| | 애국가(앞과 동명) | 10~12 |
| | 대한혼(大韓魂) | 12~14 |
| | 운동가(運動歌) | 14~15 |
| | 애국가(앞과 동명) | 15~17 |
| | 애국가(앞과 동명) | 17~18 |
| | 건원절경축가(建元節慶祝歌) ²⁰⁾ | 18~20 |
| | 자유가(自由歌) | 21~25 |
| | 전진가(前進歌) | 25~27 |
| | 행보가(行步歌) | 27~29 |
| | 효덕가(孝德歌) | 29~30 |
| | 작별가(作別歌) | 30~32 |
| | 군인가(軍人歌) | 32~34 |
| | 정신가(精神歌) | 34~37 |
| 음악(音樂)의 해계(階梯) | 37~41 | |
| 두 번째 김원극씨 연설 (二 金源極氏演說) | 대동종교회(大同宗敎會)에서 | 41~52 |
| 세 번째 각종 문자유취 (三 各種文字類聚) | 문자유취(文字類聚) | 52~62 |
| | 애국명(愛國吟) | 62~63 |
| | 대부명(大夫吟) | 63 |
| | 기타기록 | 64 |

위의 표를 보면 『잡집』이 여러 소항목들로 나뉘져있지만, 창가가 3분의 2에 가까운 분량을 차지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본고는 상대적으로 비중

표지까지 포함하여 계산하기에, 쪽수라는 명칭을 썼다.

- 20) 『잡집』의 <건원절경축가>는 『최신창가집』에는 ‘乾元節慶祝’이라고 표기되어있다. (광성중학교 편, 『최신창가집』, 등사본, 1914(국가보훈처 영인, 1996), 115쪽.) 건원절은 본래 ‘乾元節’이라고 표기되지만, 『공립신보』 1908년 3월 11일자 기사 ‘慶祝 建元節’에서는 ‘建元節’이라고 표기되어있다. ‘乾’과 ‘建’의 발음이 같다보니 두 한자들이 혼용되었다고 보인다. 이런 식으로 같은 발음의 다른 한자를 표기한 경우는 『잡집』을 비롯한 박창식의 여타 기록들 곳곳에서 나타난다.

이 작은 대항목부터 비중이 큰 대항목까지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본고는 「두 번째 김원극씨 연설」, 「세 번째 각종 문자유취」 순서대로 살펴보며, 「첫 번째 현행유명가곡」은 뒤에서 따로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 김원극씨 연설」은 제목 그대로 김원극의 연설문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김원극은 함경남도 영흥 출신의 유학자이자 『서북학회월보(西北學會月報)』, 『태극학보(太極學報)』의 주필을 맡았던 계몽주의 지식인이었다. 김원극은 살아 생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문물이 발전했음을 목격하기도 했으며,²¹⁾ 정치학, 경제학은 물론이고 곤충학에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열정적인 계몽주의 지식인이었다.²²⁾ 이 김원극이 죽자 고향 영흥 지방의 사람들이 모여서 김원극의 기념비를 건립해주시기도 했다.²³⁾ 김원극은 박은식이 일으킨 개신 유학(改新儒學) 운동인 대동교(大同敎) 운동²⁴⁾에 동참하였고, 그 대동교 모임에서 한 연설의 연설문을 자신이 주필로 있는 『서북학회월보』 18호에 「大同敎會演說」이라는 기사로 올리기도 했다. 『잡집』의 「두 번째 김원극씨 연설」은 이 기사와 몇몇 글자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다. 그 연설문에서 눈여겨볼만한 문장을 아래에 실는다.

21) “오는 길에 우리는 서로 탄식하며 이야기했다. 이것이 바로 삼대성시(三代盛時)에 누대와 연못에 종과 북을 걸고 백성과 더불어 두루 화락했다는 바로 그것 아닌가. 예부터 우리 나라에 입으로는 이 책을 외웠으며 이를 실행한 자가 있었던가?”(김원극, 『아사쿠사공원 유람기』, 서경석·김진량 편, 『식민지 지식인의 개화 세상 유학기』, 태학사, 2005, 29쪽.)

김원극은 문물이 발전한 일본의 모습을 유학적 이상향에 견주어 있으며, 근대 한국이 발전하지 못 한 이유도 유학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 해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김원극이 개신 유학 운동에 가담한 사실은 당연해보인다.

22) 최재목, 「金源極을 통해서 본 1910년대 陽明學 이해의 특징」, 『양명학』 23, 한국양명학회, 2009, 154쪽.

23) 「金源極氏 記念碑 永興有志들의 建立」, 『동아일보』 1934년 11월 29일.

24) 김순석, 「박은식의 대동교 설립운동」, 『국학연구』 4, 한국국학진흥원, 2004, 189~190쪽.

第三은尊我主義니孔子가支那에生호신故로支那를尊호야尊華의義를發明호심이니萬一我國에生호얏드면我國을華로尊호얏슬지라然호즉吾輩도惟一我國을尊崇호는것시孔子를善學호는者리謂호호지오²⁵⁾

위의 연설문에서 김원극은 공자가 한국에 태어났다면 한국의 문화를 ‘華’ 즉 으뜸 문화로 삼았으리라고 주장한다. 김원극을 비롯한 개신 유학자들은 공자가 학문을 실천한 선구자이기에 따를 뿐, 공자의 문화를 따르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처럼 개신 유학은 중국의 문화를 따르는 중화주의가 아니라 자국의 문화를 따르는 국가주의에 기반해있었다. 이 연설문은 『잡집』이 개신 유학과 연계된 계몽주의 및 국가주의에 기반해있음을 알려준다.

『세 번째 각종 문자유취』는 전문이 거의 한문으로 되어있다. 박창식은 개인 시집 『시집(詩集)』, 『옥포집(玉圃集)』과 원대 방화가 편찬한 시선집 『영규율수(瀛奎律髓)』 일부를 스스로 필사할 정도로, 한문학에 큰 관심을 보였다. 박창식은 『세 번째 각종 문자유취』에 ‘玉圃題’라고 표기하기도 했는데,²⁶⁾ 박창식이 이 한문 문장들을 혼자서 지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 한문 문장들의 원문들은 『잡집』 외에 다른 서적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는 척 하는 선비는 사려의 변화가 없으면 즐기지 않으며
말 잘 하는 선비는 말을 할 순서가 없으면 즐기지 않는다²⁷⁾

작은 앓은 큰 앓에 미치지 못 하며 짧은 삶은 긴 삶에 미치지 못 한다
버섯은 밤과 새벽을 알지 못 하며 쓰르라미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 한다²⁸⁾

25) 박창식(연대미상), 앞의 책, 50~51쪽.

26) 박창식(연대미상), 앞의 책, 60쪽.

27) “知土無思慮之變則不樂 / 辯土無談說之序則不樂”(박창식(연대미상), 앞의 책, 53쪽.)

행하는 자는 머무는 자의 편안함을 생각하며
머무는 자는 행하는 자의 수고로움을 생각한다²⁹⁾

일 일으키기는 청천백일과 같으니 일 도모하기는 사람에게 달렸고
사람 만나기는 노월광풍과 같으니 일 이뤄지기는 하늘에 달렸다³⁰⁾

첫 번째 인용문은 아는 척 하는 선비는 사려의 변화만 좇고, 말 잘 하는 선비는 말을 할 순서만 좇음을 비판한다. 첫 번째 인용문은 『장자(莊子)』 「서무귀(徐無鬼)」편에 그 원문이 실려있는데,³¹⁾ 이 원문에서는 아는 척 하는 선비와 말 잘하는 선비를 모두 물질에 얽매인 자라고 비판한다. 두 번째 인용문은 작은 앓이 큰 앓에 비하면 모자라고 어린 날은 큰 날에 비하면 모자라기에, 앓을 크게 하고 성숙해져야함을 말한다. 두 번째 인용문은 『장자』 「소요유(逍遙遊)」편에 그 원문이 실려있는데,³²⁾ 이 원문에서는 버섯과 쓰르라미가 모두 오래 살지 못 해서 어리석다고 지적한다. 세 번째 인용문은 행하는 자와 머무는 자가 각각 상대방의 처지만 부러워함을 비판한다. 세 번째 인용문은 원대(元代) 『시전통석(詩傳通釋)』 권1에 그 원문이 실려있는데,³³⁾ 이 원문에서는 비를 만난 상황이 상대방의 처지를 부러워하게 되는 계기로서 추가되어있다. 네 번째 인용문은 일을 일으

28) “小知不及大知 少年不及大年 / 朝菌不知晦朔 蟪蛄不知春秋”(박창식(연대미상), 앞의 책, 54쪽.)

29) “行者思居者之安 居者思行者之勞”(박창식(연대미상), 앞의 책, 55쪽.)

30) “作事如青天白日 謀事在人 / 待人如露月光風 成事在天”(박창식(연대미상), 앞의 책, 62쪽.)

31) “知士无思慮之變則不樂辯士无談說之序則不樂察士无凌誅之事則不樂皆囿於物者也” 『장자』 「서무귀」.

32) “小知不及大知小年不及大年奚以知其然也朝菌不知晦朔蟪蛄不知春秋此小年也” 『장자』 「소요유」.

33) “彭氏曰某氏云行者遇雨則思居者之安居者遇雨則思行者之安勞也” 『시전통석』 권1.

키는 작업은 사람에게 달려있지만, 일을 성사시키는 작업은 하늘에게 달려있음을 지적한다. 네 번째 인용문은 명대(明代) 『엽팔백역전(葉八白易傳)』 권334, 청대(清代) 『사변록집요(思辯錄輯要)』 권535, 청대 『어제문집(御製文集)』 3집 권936 등에 그 원문들이 실려있는데, 그 원문들이 밝힌 출처들도 다양하기에 그만큼 널리 퍼진 통념이라고 볼 수 있다.³⁷⁾ 첫 번째 인용문, 두 번째 인용문, 세 번째 인용문, 네 번째 인용문 모두 원문의 일부만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문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 네 인용문들은 함께 지식인의 잘못된 자세를 비판하며, 지식인이 사회적 실천을 위해서 때를 기다려야함을 말하고 있다.

박창식은 『세 번째 문자유취』가 시작되는 지면에 ‘文字類聚 莊子’라고 표기해놓았으며³⁸⁾, 네 인용문들을 자신의 『일기장』에도 실으면서 ‘文字類聚 莊子’라고 표기해놓았다.³⁹⁾ 네 인용문들의 원문들이 모두 『장자』와 관련되어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이 표기들로 보아 박창식이 『장자』와 그에 관련된 서적들을 읽으면서 원문들을 접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박창식의 이러한 한문학을 향한 관심은 한문 교육과 계몽주의 교육을 동시에 받으며 형성된, 선비이자 계몽주의 지식인인 박창식의 이중적 정체성을 보여준다.

위의 네 인용문들은 『잡집』이 언제 필사되고 편찬되었는지에 관한 단

34) “葉子曰謀事在人成事在天古之訓也” 『엽팔백역전』 권3.

35) “古詩有云 謀事在人 成事在天” 『사변록집요』 권5.

36) “淸文繡繙譯全藏經序 爲事在人成事在天” 『어제문집』 3집 권9.

37) 『엽팔백역전』은 출처를 ‘古之訓’이라고 밝히며, 『사변록집요』는 출처를 ‘古詩’라고 밝히며, 『어제문집』은 출처를 ‘全藏經序’라고 밝힌다. ‘謀事在人’과 ‘成事在天’은 『삼국지연의』 제갈량의 대사이기도 하다. 이처럼 네 번째 인용문은 단일한 출처를 특정 짓기에는 너무 흔하게 퍼져있다.

38) 박창식(연대미상), 앞의 책, 52쪽.

39) 박창식(1910), 앞의 책, 79~82쪽.

서를 주기도 한다. 박창식은 자신이 『장자』를 읽은 일도 일기장에 기록해 놓았는데, 아래와 같다.

(二十) 莊子를覽호야無限호趣味를得호다⁴⁰⁾

『일기장』에 따르면 박창식은 1910년 9월 20일 즈음에 『장자』를 읽고 심취하게 되었으며, 이 『장자』로부터 발췌했다는 문장들이 『일기장』과 『잡집』에 함께 실려있다. 이로 보아 『잡집』도 이즈음에 필사되고 편찬되었다고 추정된다. 『잡집』에는 특별히 언제 필사했다고 표기한 기록을 찾기 힘들며, 『시집』의 겉표지에 ‘隆熙三年二月’이라고 표기되어있어서 『잡집』도 그즈음에 필사되어 편찬되었다는 입장도 있다. 다만 두 입장들 모두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에, 본고도 필사 및 편찬 일자를 단정짓지는 않겠다.

『세 번째 각종 문자유취』에는 한문 문장들뿐만 아니라 운문도 함께 실려있다. <애국령>과 <대부령>은 다른 창가들과는 달리 『세 번째 각종 문자유취』의 한가운데에 끼여있는데, 산문이라기에는 절마다 줄이 바뀌어있다. <애국령>의 제목은 『세 번째 각종 문자유취』의 한문 문장들과 같은 지면에 함께 표기되어있기에,⁴¹⁾ 『세 번째 각종 문자유취』로부터 분리시킬 수는 없다. 그러므로 박창식이 실수로 <애국령>과 <대부령>을 뒤에 넣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 <애국령>과 <대부령>을 뒤에 실은 이유를 알기는 힘들지만, 박창식이 『잡집』에 많은 운문을 담고자 했음은 알 수 있다.

40) 박창식(1910), 앞의 책, 48쪽.

41) 박창식(연대미상), 앞의 책, 62쪽.

3) 『잡집』의 교과서적 기능

『잡집』에는 연설문과 한문 문장뿐만 아니라 창가를 음악적으로 교육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박창식에게 창가는 문학이자 음악으로서, 음악적으로 교육되어야 하는 주요 과목이었다. 『잡집』의 『음악의 해제』는 박창식이 창가를 음악적으로 어떻게 교육시키고자 했는지를 알려준다.

(三) 八介靛音은何字로分別 ㅎ나뇨

答 아다리아국子음으로도,레,미,바,솔,나,다,도,

| | | | | | | | |
|-----|-----|-----|-----|-----|-----|-----|-----|
| 8 도 | 7 다 | 6 나 | 5 솔 | 4 바 | 3 미 | 2 레 | 1 도 |
|-----|-----|-----|-----|-----|-----|-----|-----|

(四) 音에高低를무엇스로표 ㅎ나뇨

答 五根平線과四空間이니라

(五) 五根平線과四空間을何라名 ㅎ나뇨

答 樂步音度라 ㅎ나니라

(六) 워樂步音度를用 ㅎ나뇨

答 靛음의高低를分別 ㅎ이니라⁴²⁾

『음악의 해제』는 위의 인용문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문답식의 대화법으로 이루어져있다. 숫자가 매겨진 질문이 던져지면, ‘답’이라고 적힌 답문이 이어진다. 이 질문들은 음악에서 음이 무엇인지, 음의 높낮이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 음의 높낮이를 어떻게 표기해야하는지 등의 음악 이론을 자세하게 물어본다. 답문들도 그에 따라서 음악 이론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음악의 해제』는 긴 산문 대신 간결한 문답식의 대화법을 통해서, 음계와 악보에 생소한 학생들에게 음악 이론을 교육시켜준다.

42) 박창식(연대미상), 앞의 책, 38쪽.

로 음악 이론을 갈수록 구체화시키며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로 보아 『최신창가집』도 『잡집』과 음악 이론을 교육시키는 방법이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⁴⁴⁾

국권 피탈 이전 계몽주의 운동을 위해서 설립된 사립학교에서 창가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자료는 거의 없다. 『잡집』의 교과서적 기능은 바로 그 사립학교의 대표적인 대성학교에서의 창가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려준다. 그리고 그 교과서적 기능의 증거인 문답식의 교육법은 『잡집』뿐만 아니라, 국권 피탈 이후의 창가집이자 교과서인 『최신창가집』에도 나타난다. 즉 『잡집』의 교과서적 기능은 국권 피탈 이후로도 이어지며, 『잡집』의 학술적 의의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3. 『잡집』에 실린 창가 노랫말 분석

1) 계몽주의 지향

『잡집』은 교과서적 기능을 갖춘 창가집으로서, 여러 창가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 여러 창가들은 다른 창가집과 신문에도 실렸으며, 다른 창가집과 신문과 같이 계몽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잡집』에 실린 창가들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창가로 <행보가>를 꼽을 수 있다.

(一) 壯 亨도다우리學徒兵式行步가 / 拿破崙에軍人보다질것업갯네 / 우

44) 구양근은 『최신창가집』에 담긴 이 문답식의 대화법이 마치 성현들이 예악을 중시했던 고차원적인 느낌과 유사하다고 보았다.(구양근, 『독립군의 항일노래모음』 『최신창가집』, 『민족문제연구』 8, 민족문제연구소, 1995, 7쪽.)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문답식의 대화법은 안창호와 그 주변 지식인들의 영향으로 보인다.

리郡將号令소리흔번브를썩 / 았플보고나아감이嚴肅호도다 / 工夫호여知識어디武器만들고 / 運動으로힘을다가軍人되여세 / 우리 才操우리힘을모도합호야 / 나라일을흔번힘써도와봅시다 / (二) 뒤에일을生覺말고압만向호야將軍命만기다리고行進홀썩에 (三) 活潑호고膽大호맘各 // 가지면 / 우리압헤두려운것호노업겜네 (四) 피와땀을썩리면서奮發心으로實地上에도흔學問研究호여셔
 <행보가>45)

<행보가>는 이 창가를 제창하는 학생들이 온갖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고 배우고 힘 닦아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한다. 『잡집』에 실린 <행보가>의 노랫말은 『신한민보』에 실린 <병식행보가>와 단어 표기법만 다르며,46) 『최신창가집』에 실린 <병식행보(兵式行步)>와는 노랫말이 약간 다르다.47) 하지만 『잡집』과 『최신창가집』, 『신한민보』 모두 같은 창가명과 1절을 공유하고 있으며, 다른 뒷 절들조차도 공통적으로 개인의 실력 양성을 강조하는 계몽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잡집』의 정확한 필사연도는 알 수 없지만, 박창식이 죽은 해인 1910년 이후에 필사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최신창가집』이 1914년에 등사되었고 1914년에 필사되었다고 추정되는 『열가집(烈歌集)』의 두 <행보가>들48)에 『최신창가집』의 <병식행보>와 유사한 노랫말이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잡집』의 <행보가>가 『신한민보』의 <병식행보가>와 좀 더 예전 형태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다만 어느 쪽이 원본이라기보다는 <행보가>의 곡조에 여러 구절들을 엮어붙렸으며, 그러한 창가 가창 양상 속에

45) 박창식(연대미상), 앞의 책, 27~29쪽.

46) 『신한민보』 1910년 10월 12일.

47) 2절의 앞 구절들은 “공부할때공부하여지식넓히고 / 운동할때운동하여체육힘써서”, 3절의 앞 구절들은 “나이가고나아가고다시나아가면 / 목덕디에달할때가잇으려니와”이다.(광성중학교 편(1996), 앞의 책, 80쪽.)

48) 임형택, 『옛 노래, 옛 사람들의 내면 풍경』, 소명출판, 2005, 323~326쪽.

서 위의 구절들도 『잡집』에 실렸다고 보인다.

이 <행보가>는 『동아일보』 기사 『年久益新의大成精神과 母校復興의偉業』⁴⁹⁾에서 대성학교의 교가라고 소개된다. 대성학교의 교가였던 <행보가>는 군인이었던 체육 교사 정인목이 가르치는 체육 시간에 제창되었으며,⁵⁰⁾ 대성학교는 스파르타처럼 군대식 교육을 추구했다.⁵¹⁾ 『잡집』에 실린 <행보가>는 『잡집』이 대성학교와 연관되어있으며, 대성학교처럼 군대식 교육을 추구함을 알려준다. 그렇기에 『잡집』에는 군가를 연상하게 하는 <군인가>도 실려있다.

어화우리軍人들야 忠君愛國호여보세 / 日月갓튼우리聖君 文明開化힘
쓰신다 / 東羊亞羊地球上에 主自獨立分明하다 이럼으로軍人待接 世
界上에第一일세 / 仁義禮智天順이요 / 孝弟忠信人第로다 어화우리軍
人들야 이니말씀들러보쇼 <군인가>⁵²⁾

<군인가>는 창가명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군대식 교육을 추구하고 있으며, 노래말에서도 군인을 제일 존중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이 <군인가>의 ‘어화우리軍人들야 이니말씀들러보쇼’라는 구절은 군인들이 지은 다른 창가들, 친위대 군인인 인용선이 지은 <애국가>⁵³⁾, 시위대 참령 윤철규가 지은 <군가>⁵⁴⁾에서도 나타난다. 이 <군인가>는 군인들이 지은 창가들과 일부 구절을 공유한다.

49) 『동아일보』 1925년 9월 8일.

50) 『삼천리』 4권 1호, 1932년 1월 1일, 14~15쪽.; 『동광』 40호, 1933년 1월 23일, 47쪽.; 주요한, 『안도산전서(安島山全書)』, 삼중당, 1963, 82쪽.

51) 장리욱, 『도산안창호(島山安昌浩)』, 태극출판사, 1969, 110~111쪽.

52) 박창식(연대미상), 앞의 책, 32~33쪽.

53) “어화 우리 군인들야 이 말씀 드러보오”(『독립신문』 1897년 1월 28일.)

54) “어화우리 군인들야 이내말삼 들어보쇼”(『독립신문』 1898년 11월 1일.)

<군인가>는 ‘仁義禮智天順이요 / 孝弟忠信人第로다’라며 유학의 기본 윤리도 주입시킨다. <군인가>는 ‘主自獨立分明하다’라며 계몽주의도 함양시킨다. <군인가>가 이렇게 군대식 교육뿐만 아니라 유학의 기본 윤리에 계몽주의까지도 함께 권장하는 이유는 이 당시의 군대식 교육이 학교 교육과 계몽주의 교육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대성학교뿐만 아니라 공립학교에서도 관찬 교과서인 『신정 심정소학』에 <군가>가 실리면서,⁵⁵⁾ 근대에 군가는 군대식 교육과 학교 교육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근대에는 군대식 교육과 학교 교육, 계몽주의 교육 간에 별다른 경계가 없었기에, 『잡집』에는 유학의 기본 윤리를 담은 <효덕가>⁵⁶⁾, 국가의 곤란을 한탄하며 문명 개화 운동에 앞장서자는 <운동가>⁵⁷⁾, <자유가>⁵⁸⁾, <정신가>⁵⁹⁾, <작별가>⁶⁰⁾ 등도 <군인가>와 함께 실려있다. 특히 개인의 실력 양성을 권장하는 창가로 유명한 <권학가>도 『잡집』에 실려있다.

(一) 歲月이流水갓흐야 / 살갓치지느네 / 光明이날을爲흐야 / 디테키萬
無세 / (二) 오늘날흔번보니면 / 쏘다시보릿가 / 金보다貴흔歲月을 / 착실
이익기세 / (三) 우리에青年時代는 / 살시와갓고나 / 期會를잇적일흐면 /
또엇거어렵소 / (四) 生存을競爭흐난적 / 할 일만호中 / 知識이웃듬이로다

55) 학부편집국, 『第十七課 訓練이라』, 『新訂尋常小學 券二』, 1896, 18~19쪽.

56) “(一) 산아사이눔흔산아 / 네아모리높다흔들 / 우리父母날기를심 / 눅흔恩德밋출소
나 / 눅고 ” 흔父母恩德 / 엇지흐면報答 흐리”(박창식(연대미상), 앞의 책, 29쪽.)

57) “大韓國萬歲의富强基業은 / 國民을教育함에全히잇소다 / 우리는德을다고智慧길
녀서 / 文明에先導者가되여복세다”(박창식(연대미상), 앞의 책, 14쪽.)

58) “同胞야 ” ” ” 우리同胞 / 自由를어서 ” ” 恢復 흐세 / 우리의서른心情말흐자면 / 蘇
奏의雄辯으로도못흐겠네”(박창식(연대미상), 앞의 책, 21쪽.)

59) “눈을들어살펴보니 / 三千里 우에스모찬겨슨 / 우리父母 흔스뉘이요 / 우리學徒에눈
몰이로세”(박창식(연대미상), 앞의 책, 35쪽.)

60) “(2) 華麗江山이나라에 / 우리들이숨겨이서 / 서로못혀등락타가 / 니별종츠눈몰이
라”(박창식(연대미상), 앞의 책, 31쪽.)

/ 비흐야하갯네 / (五) 高名 高學士되기는 / 一刻에달넛네 / 一刻에千金주
어도 / 一刻을팔지마오 <권학가>61)

<권학가>의 논조는 <행보가>에 비하면 군대식 교육의 색채가 덜하기
에, 그나마 온건적이다. 그러나 <권학가>도 시간이 ‘살시’ 즉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남을 언급하며, 학생들이 실력을 양성하는 계몽주의를 지향한다
는 점에서는 앞선 창가들과 다르지 않다.

이 <권학가>는 안창호 유품인 『구한말 애국창가집(舊韓末愛國唱歌
集)』에도 실려있다.⁶²⁾ 『잡집』에 실린 <권학가>는 『잡집』과 안창호 유품
인 『구한말 애국창가집』과의 연관 관계를 보여준다.

『잡집』에는 <행보가>와 <권학가> 못지 않게 개인의 실력양성을 권장
하는 <전진가>도 실려있다.

참깃썬음성으로노리흐며 / 職務의前進 " " 行흐시다 / 學課을全務호디
落心말고 / 흐갯다흐세우리職務를다 / 前進 " " 깃썬맘과 / 前進 " "
깃썬노리 / 各科를全務호디落心말고 / 흐갯다흐세우리職務를다
<전진가>63)

<전진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職務’를 다하는 일이 곧 국가의 발전으
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며, <행보가>, <권학가>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실력 양성을 권장한다. <전진가>는 후렴구를 통해서 학생들이 끝없이 나

61) 박창식(연대미상), 앞의 책, 2~3쪽.

62) 이 창가집의 정확한 명칭이나 간행 연도는 알 수 없기에, 신용하가 임의로 『구한말
애국창가집』이라고 명명했다.(신용하, 『도산 유품 『구한말 애국창가집』 - 해제 -,
『한국학보』 13, 일지사, 1987, 212~213쪽.)

63) 박창식(연대미상), 앞의 책, 25쪽.

아가도록 격려한다.

그런데 이 『잡집』의 <전진가>는 『열가집』⁶⁴⁾, 『최신창가집』⁶⁵⁾, 『신한민보』⁶⁶⁾의 <전진가>와는 많이 다르다. 『열가집』의 <전진가>와 『최신창가집』의 <전진가>는 절의 순서가 다른 점만 빼고는 거의 유사한 노랫말을 공유하고 있으며, 『신한민보』의 <전진가>에는 이 노랫말에 대략 여섯 절들이 추가되어 10절까지 있다. 반면 이 『잡집』의 <전진가>에는 『신한민보』의 <전진가>에는 없는 구절들이 있다.

萬物中貴 人類니 兄弟여 / 이時代當 ㅎ여서 衰되안나 / 外國을 건너보면
 저人類도 / 우리와 同等人類되엿갓만 / 선성선文明 빨니 ㅎ으로써 / 世界에
 強國으로 名 언네 / 兄弟여 " " " " 尼 兄弟여 / 新工夫 ㅎ여서 면이 地境가 / 血
 心을 奮發 ㅎ야 工夫 ㅎ여 / 今日로 우리나라 回復 ㅎ세 <전진가>⁶⁷⁾

위의 구절들은 『열가집』, 『최신창가집』, 『신한민보』의 <전진가>들에는 없고 『잡집』의 <전진가>에만 있다. 이 구절들도 <행보가>의 경우처럼 박창식이 <전진가>의 곡조에 얹어 부르던 여러 구절들을 모아서 기록했으리라 보인다. 다만 이 구절들도 다른 <전진가>들처럼 여전히 개인의 실력을 양성하여 국가의 독립을 쟁취하자는 계몽주의를 지향함은 다르지 않다.

2) 영토의식과 충군의식의 공존

『잡집』은 개인의 실력 양성을 권장하며 계몽주의를 고취시킬 뿐만 아

64) 임형택(2005), 앞의 책, 324쪽.

65) 광성중학교 편(1996), 앞의 책, 73쪽.

66) 『신한민보』 1916년 5월 4일.

67) 박창식(연대미상), 앞의 책, 26~27쪽.

나라 영토의식을 자극하며 국민들의 충성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대한혼>은 영토를 국가의 국체로서 찬양하는 영토의식이 창가의 노랫말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여준다. 국권 피탈이 가까워질수록 창가의 노랫말에는 군주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충군의식 대신 국가의 영토를 애찬하며 ‘魂’이라는 용어로 신성화시키는 영토의식의 비중이 커져갔다. 이 <대한혼>은 이 영토의식을 담은 대표적인 창가이다.⁶⁸⁾

<대한혼>은 『최신창가집』⁶⁹⁾과 『신한민보』⁷⁰⁾에 실려있다고 알려져있었지만, 최근에 하와이판 『애국가』⁷¹⁾와 손봉호 편 『창가』⁷²⁾에 약간 변경되어 실렸음이 밝혀졌다. 하와이판 『애국가』가 1916년에 등사되었고,⁷³⁾ 『최신창가집』이 1914년에 등사되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잡집』은 1910년에 필사된 손봉호 편 『창가』와 함께⁷⁴⁾, <대한혼>이 1910년경부터 가장 되고 향유되었음을 알려준다.

『잡집』에 실린 <대한혼>도 다른 창가집이나 신문에 실린 <대한혼>과 그 노랫말이 크게 다르지 않다.

華麗 江山 우리大韓은 / 三千里 範緯 가적지안고나 / 白頭山 으로 漢拏山
 식지 / 自然 景概 概 그러닛도다 / 先祖 가이미여게 못치고 / 우리大韓魂
 이되리니 / 四千年 大韓 祖國 疆土 는 / 너집을 너가 保護 헛갬네 / 言語

68) 이민규(2017), 앞의 논문, 87~88쪽.

69) 광성중학교 편(1996), 앞의 책, 73쪽.

70) 『신한민보』 1916년 4월 13일.

71) 이유기, 『1910년대 하와이판 『애국가』에 대한 연구』, 『동악어문학』 51, 동악어문학회, 2008, 143쪽.

72) 장유정, 『옛날 노래책에 빠지다 - 애국창가집, 『창가』(손봉호孫鳳鎬, 1910년 발행)의 해제』, 『근대서지』 7, 근대서지학회, 2013, 120쪽.

73) 이유기(2008), 앞의 논문, 140쪽.

74) 장유정(2013), 앞의 논문, 118쪽.

와衣服갓튼同族이 / 혼마음 혼뜻든 〃 흥고나 / 冤讎가비록山海갓트되 / 自由에精神씩지못흐네 / 貴 흥고빛는우리太極旗 / 우리魂을모다들리네 / 強 〃 혼마음구든團體로 / 同族을서로도아주겜네 <대한훈>⁷⁵⁾

『잡집』의 <대한훈>은 『최신창가집』과 『신한민보』의 <대한훈> 중 1~3절뿐이지만, 영토의식을 그대로 담고 있다. 이 <대한훈>은 국가의 영토를 애찬하면서 ‘魂’이라는 용어로 신성화시키며, 그 ‘魂’을 민족 구성원인 ‘우리’의 소유로 삼고 있다. 그리하여 <대한훈>은 영토에서 국가의 신성한 혼을 찾으려, 그 혼을 민족 구성원인 국민에게로 일체화시킨다.

이렇게 국가의 영토를 애찬하면서 신성화시키는 영토의식이 군주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충군의식과 함께 공존하기는 힘들다. 충성의 대상이 군주와 영토, 동시에 둘일 수는 없으며, 그래서 창가의 노랫말에서 충군의식과 영토의식이 공존하기도 힘들다.⁷⁶⁾ 그런데 영토의식을 담은 창가 <대한훈>과 충군의식을 담은 또 다른 창가 <건원절경축가>가 『잡집』에는 함께 실려있다. <건원절경축가>의 노랫말은 아래와 같다.

(一) 萬有에主宰上帝씩옵서 / 天地를짓고사람너실제 / 亞細亞東方넓은半島에 / 二千萬人族우리낫도다 / 깃브고깃분오날 〃 이요 / 우리皇上 生日이로세 / 大皇帝陛下聖壽無疆을 / 흥느님전에축복홈시다 / (二) 四千年開國大韓國이요 / 尊嚴 흥우리皇室이로세 / 우리의皇室五百餘年에 / 全枝玉葉이繁盛 흥옛네 / (三) 甲戌年二月初八日신은 / 우리皇上建元節일세 / 聖子와神孫니오신位가 / 우리皇上씩밋츠섯도다 / (四) 堂 〃 흥帝國三千里안에 / 獨立基礎가堅固 흥도다 / 華麗 흥江山우리疆土는 / 우리의祖國遺業이로세 / (五) 仁慈 흥德과英慧 흥심이 / 列聖祖우혜뛰여낫도다 / 日月

75) 박창식(연대미상), 앞의 책, 13쪽.

76) 이민규(2017), 앞의 논문, 47~53쪽.

과긋치밝은성총이 / 東亞洋上에顯達호도다 <건원절경축가>⁷⁷⁾

<건원절경축가>는 천지를 창조한 ‘上帝’, ‘하느님’에게 군주의 영원을 기원하며, 군주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건원절경축가>에서도 영토는 ‘亞細亞東方 넓은半島’라며 언급되지만, ‘堂 // 軒帝國三千里’라며 군주가 통치하는 영역일 뿐이다. 특히 <건원절경축가>에서 영토는 ‘日月과긋치밝은성총’이 비취지는 공간으로서 인식된다.⁷⁸⁾ 그러므로 <건원절경축가>에서 충성의 대상은 영토가 아니라 군주이다.

이 <건원절경축가>는 군주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충군의식이 창가의 노랫말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창가이다. 이 <건원절경축가>는 <대한훈>과 함께 『잡집』에 실려있으며, 이는 『잡집』에 충군의식과 영토의식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충군의식의 우위와 그 이유

그런데 『잡집』이 연관된 대성학교에서는 안창호의 지시에 따라서, 당시 제창되던 <애국가> 4절의 ‘임군을 섬기며’를 ‘충성을 다하여’로 바꿔 부르기도 했다.⁷⁹⁾ 이는 대성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했던 안창호가 가급적 창가의 노랫말에서 충군의식을 배제시키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잡집』에 충군의식과 영토의식이 어떻게 공존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잡집』에 실린 여러 <애국가>들이 충군의식과 영토의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잡집』에는 동명의 <애국가>가

77) 박창식(연대미상), 앞의 책, 18~20쪽.

78) 이 ‘성총’이 『최신창가집』에서는 ‘聖聰’으로 표기되어있다. 이로 보아 이 ‘성총’은 군주의 총명함을 의미한다.(광성중학교 편(1996), 앞의 책, 115쪽.)

79) 장리욱(1969), 앞의 책, 120~121쪽.

무려 총 5곡이나 있는데, 쪽수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식으로 순서를 매겨서 지칭하고자 한다.

亞洲東方적은半島는 / 開國된지四千年君主國일세 / 檀君箕子朝鮮國
 으로 / 光武六年大韓國太極旗로다 / 三千邦里祖國疆土난 / 二千萬 "우
 리에遺業이로다 當 "帝國놈흔일흠을 / 世界強國압호로자랑히보세
 我皇陛下仁慈함으로 / 萬歲 " "億萬歲繼承호소서 / 大韓帝國新民된자야
 / 落膽喪魂마시고니러납시다 <애국가>80)

(1) 亞細亞東便에突出한半島 / 面積이三千里人口二千萬 / 十三道各
 郡合이三百四十二 / 堂堂한大帝國이分明호도다 / (2) 現今은競爭에文明
 時代니 / 弱至肉强至食이滋甚호도다 / 學問에힘입혀서團體호면 / 國家
 와人民들이부디못호네 (4) 學徒야學徒야精神즈러라 / 北美洲華盛頓
 에美國獨立과 / 德義洲俾斯麥의千年綉樂이 / 모드다學問으로말메암앗네
 <애국가>81)

學徒야 " " "青年學徒야 / 壁土上에掛鐘을들러보시오 / 흔소취두소취
 가고못오니 / 人生의百年에走馬갓조다 華盛頓俾斯麥校則호여서 / 慶
 長호三千里大韓國은 / 어화야우리學徒擔當함시다 / 父母씨孝悌로榮華
 돌니고 / 님군씨忠義로功業을세워서 / 國家의참主人우리學徒는 / 忠孝와
 謙遜으로結果함시다 <애국가>82)

첫 번째 <애국가>에서 영토는 그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亞洲東方적은半島’라고 언급되지만, 그 언급에 바로 이어서 영토는 ‘四千年君主國’

80) 박창식(연대미상), 앞의 책, 3~5쪽.

81) 박창식(연대미상), 앞의 책, 8쪽.

82) 박창식(연대미상), 앞의 책, 10~12쪽.

으로 호칭된다. 즉 첫 번째 <애국가>에서 영토는 어디까지나 군주의 통치에 따라서 국가의 자격을 획득하는 ‘當 〓 帝國’이다. 이 ‘當 〓 帝國’이라는 표현은 앞서 살펴본 <건원절경축가>의 ‘堂 〓 軒帝國三千里’라는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유사한 표현이 노랫말들에서 공유되면서, 동일한 주제의식인 충군의식까지도 공유된다.

두 번째 <애국가>에서 영토는 그 지리적 위치에 따라서 ‘亞細亞東便에突出한半島’라고 언급되지만, 이어서 영토는 ‘堂堂한大帝國’이라고 호칭된다. 두 번째 <애국가>는 2절에서 세계 정세에 대해서 논하며, 4절에서 미국의 워싱턴과 독일의 비스마르크를 본받자고 노래한다. 하지만 이러한 배움은 ‘堂堂한大帝國’을 지키기 위해서만 이루어질 뿐이다. 두 번째 <애국가>에서도 <건원절경축가>, 첫 번째 <애국가>와 유사한 표현이 공유되며, 동일한 주제의식인 충군의식도 공유된다.

세 번째 <애국가>는 <권학가>와 유사하게 시간이 말처럼 빨리 지나가니 실력 양성에 분발하라고 학생들을 재촉한다. 세 번째 <애국가>는 두 번째 <애국가>처럼 미국의 워싱턴과 독일의 비스마르크를 본받아서, 군주에게 충의로 공을 세우자고 노래한다. 세 번째 <애국가>에서도 영토는 군주가 통치하는 영역인 ‘三千里大韓帝國’로 호칭된다. 세 번째 <애국가>에서도 <건원절경축가>, 첫 번째 <애국가>, 두 번째 <애국가>와 유사한 표현이 공유되며, 동일한 주제의식인 충군의식도 공유된다.

네 번째 <애국가>와 다섯 번째 <애국가>도 적극적으로 충군의식을 표출한다.

聖子神孫五百年은 / 우리皇室이요 / 山高水麗東半島는 / 우리本國일세 / 無窮花三千里 / 華麗江山 / 大韓스담大韓으로 / 기리保全
 〓세 / 忠君 〓는熱誠義氣 / 北岳갓치높고 / 愛國 〓는一片團心 / 東海갓치

갑고 / 千萬人 에 오작한 밤 / 나라 사랑 하야 / 士農工商貴賤間에 / 職分 만다
 하세 / 우리나라 우리皇室 / 皇天 이 도으스 / 萬民 共樂 萬 歲에 / 太平 獨立
 하세 <애국가>⁸³⁾

와도다 " " " 봄이와도다 / 三千里 江山 안의 봄이와도다 / 萬物 이 씨를 쫓
 촛빛을發 하니 / 春風의 和氣 中에 恩惠 汲도다 / 아우리皇室 五百餘年 / 해마
 다금진요구 繁盛 하엿네 / 大皇帝 陛下에 聃흔 신일 흠 / 太西洋 六大洲의 顯達
 하엿네 <애국가>⁸⁴⁾

네 번째 <애국가>는 ‘皇室’ 즉 군주를 ‘聖子神孫’으로 추켜세우며, ‘皇
 天’ 즉 군주의 하늘까지도 군주를 도우리라고 노래한다. 네 번째 <애국
 가>에서 영토인 ‘山高水麗東半島’는 ‘皇室’인 군주가 통치하는 영역일
 뿐이다. 네 번째 <애국가>에서도 ‘忠君’과 ‘愛國’은 동의어이며, 위의 세
 <애국가>들처럼 충군의식이 노래된다.

네 번째 <애국가>는 이유선의 연구에 따르면, 1896년 11월 21일의 독
 립문 정초식을 위해서 급히 창작되어 <애국가>라고 명명되었다고 한
 다.⁸⁵⁾ 네 번째 <애국가>는 <무궁화가>라고 명명되어 『독립신문』에도
 실려있다.⁸⁶⁾ 즉 네 번째 <애국가>는 『잡집』이 당시 1890년대 신문의 창
 가 가장 양상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섯 번째 <애국가>는 영토를 ‘三千里江山’이라고 부르지만, 곧 ‘大皇
 帝陛下’의 높은 명예를 위해서 함께 분발하자고 말한다. 다섯 번째 <애국
 가>도 군주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충군의식을 노래한다.

83) 박창식(연대미상), 앞의 책, 15~17쪽.

84) 박창식(연대미상), 앞의 책, 17쪽.

85) 이유선, 『韓國洋樂百年史』, 中央大學校 出版部, 1976, 49쪽.

86) 『독립신문』 1899년 6월 29일.

위의 다섯 <애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충군의식과 영토의식은 공존하면서도, 충군의식이 영토의식보다 우위에 있다. 『잡집』의 다섯 <애국가>들에서 영토는 어디까지나 군주가 통치하는 영역으로서의 의미만 가졌고, 그를 통해서만 국가로서 인식되었다. 영토는 군주에 종속되었으며, 충성의 대상은 군주였다.

『잡집』에서 충군의식이 영토의식보다 우위를 점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아볼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로 유학의 영향이 있다. 박창식은 『두 번째 김원극씨 연설』을 『잡집』에 실었을 뿐만 아니라, 김원극이 주필로 활동했던 『태극학보』를 읽은 일을 『일기장』에 기록해놓을 정도로⁸⁷⁾, 개신 유학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박창식뿐만 아니라 안창호도 유학을 외면하지는 않았다. 아래 인용문은 안창호가 유학을 어떻게 독립 운동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문 “나라가 망한 것은 다 거짓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오?”

답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문답’ 중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문 “참이 큰 덕이요 거짓이 큰 악이겠지마는, 그 때문에 국가의 흥망까지야 달라졌소?”

답 “《중용(中庸)》에, 성자(誠者)는 천지도야(天之道也)요, 성지자(誠之者)는 인지도야(人之道也)라 하였고, 또 불성(不誠)이면 무물(無物)이라 하였으니, 성(誠)이란 참이요, 천지가 참으로 유지되어가니 한번 참이 깨어지면 천지는 즉각에 부서지리라고 생각해요. 모든 별들이 궤도를 잡네 하고 탄 길을 가고, 시서(時序)가 어그러져 봄이 되는 척하고 겨울이 된다고 하면 천지는 파괴가 되고 혼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도

87) 박창식(1910), 앞의 책, 71쪽.

그와 같아서 모든 벼슬아치와 모든 백성이 다 참을 지키는 동안 결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와 반대로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참을 버리고 거짓의 길로 가면 벌써 그 나라는 어지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문 “옳소, 옳소! 그러면 우리 나라를 참 나라를 만드는 길은 무엇이요?”

답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문 “우리 민족이 2천만이나 넘는데 어떻게 그들이 거짓을 버릴 수가 있소? 또 누가 그들더러 거짓을 버리라고 명령은 하며, 그 명령을 듣기는 누가 듣겠소?”

답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해야지요.”

문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누가?”

답 (오랜 시간 말이 막힌다)

문 (말 없이 쳐다보고 있다)

답 “이제 깨달았소.”

문 “말씀하시오.”

답 “내가 해야겠소. 내가 거짓을 버리고 참 사람이 되어야겠소!”⁸⁸⁾

위의 인용문은 안창호가 설립하고 운영했던 비밀 결사 모임 흥사단의 입단 의례를 옮겨 적은 글이다. 이광수에 따르면, 흥사단은 입단 지원자가 이 문답식의 대화를 거쳐야만 입단을 승인했다고 한다. 묻는 역할은 안창호가 맡았으며, 대답하는 역할은 입단 지원자가 맡았다.⁸⁹⁾ 산과술에 가까운, 끝없는 문답이 입단 지원자로 하여금 자신이 독립 운동의 주체가 되어야함을 자각하게 한다. 위의 인용문은 문답식의 대화법이 계몽주의 지식인과 독립 운동가 사이의 사상 교육 방법임을 보여주며, 이는 계몽주의 지식인과 독립 운동가에 의해서 편찬된 『잡집』의 『음악의 해제』와 『최신창

88) 이광수, 『도산 안창호』, 범우사, 2000, 186~187쪽.

89) 이광수(2000), 위의 책, 178~179쪽.

가집』의 『음악문답』도 이러한 사상 교육 방법을 따르고 있음을 알려준다.

위의 인용문을 보면 안창호와 그 주변 지식인들이 유학을 거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안창호가 ‘거짓’ 때문에 국가가 망하겠냐며 묻자, 입단 지원자가 오히려 유학의 경서인 <<중용>>까지 인용하면서 ‘거짓’ 때문에 국가가 망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본래 국가주의와는 무관했던 유학의 자기 수양론까지 끌어들이어서 자신들의 국가주의적인 독립 정신을 굳건하게 되새긴다.⁹⁰⁾ 안창호는 외면상 기독교도였지만 어떤 종교든지 국가 독립에 도움만 된다면 주저하지 않고 수용했다.⁹¹⁾ 유학조차도 예외일 수는 없었으며, 그 유학의 충군의식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두 번째 이유로 충군의식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임시 정부가 수립된 계기인 3.1운동만 하더라도 <건원절경축가>의 주인공인

90) “문 “그까짓 홍사단, 1개 작은 단체에 국가 흥망의 운명이 달릴 수가 있겠소. 게다가 홍사단은 정치 단체도 아니요, 독립 운동하는 혁명 단체도 아니고 아직 100명 내외의 단위를 가진 수양 단체에 불과하거든, 이 홍사단이 것처럼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수가 있겠소?”

답 “글쎄요.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까마는 그래도 그 길 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역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완전한 국민이 되도록 수양하면서 그 사람들이 굳게 단결하여서 전 국민을 다 건전한 국민이 되도록 힘쓰는 길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이광수(2000), 앞의 책, 208쪽.)

안창호는 이 입단 의례 내내 홍사단을 “정치 단체가 아니요, 일개 수양 단체”라고 낮춰말하며, 입단 지원자가 “내가 자기 수양 단체인 홍사단에 들려고 하는 것은”이라고 말하여(이광수(2000), 앞의 책, 214쪽.) 자기 수양이야말로 독립 운동의 기초라고 대답하게끔 유도했다. 안창호에게는 국가의 문제와 분리된 자기 수양이란 존재할 수 없는 일이었다.

91) “예수교인이면 주기도문, 불교인이면 심경(心經)을, 무엇이나 제 믿음에 따라서 제가 참된 심경으로 묻고 대답할 힘을 달라고 빌 것이었다.”(이광수(2000), 앞의 책, 179쪽.) 안창호는 이 문답식의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각자가 자신이 믿는 종교에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면서, 종교를 통해서 독립 정신을 되새기도록 했다. 이러한 종교관은 종교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근현대 국가주의자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순종의 아버지 고종이 죽으면서 일어났다. 국민들에게 군주는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전까지 여전히 충성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왕조국가를 뛰어넘어 국민국가를 지향한 안창호조차도 홍사단의 입단 의례에서 충군을 언급할 수 밖에 없었다.

문 “우리 민족이 충군(忠君)·애국(愛國)의 이치를 알았던가요?”

답 “알았습니다.”

문 “우리 민족이 충군·애국을 하였던가요?”

답 “충군·애국을 알기는 저마다 알았어도 그것을 행한 사람은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문 “옳소, 꼭 그대로요. 민주주의란 것은 백성 저마다가 그 나라의 주인이란 말이오. 가령 어떤 집이 하나 있고 그 집에 주인도 있고 나그네나 고용인이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주는 차이가 있을까요?”

답 “주인은 그 집이 제 집이므로 그것을 사랑하고 아끼고 언제나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힘쓸 것이요. 나그네나 고용인은 그것이 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편안할 것만 생각하지 그 집 생각은 안 할 것입니다.”

문 “우리 2천만 민족에는 우리나라의 주인으로 자처하는 이가 많은가요? 나그네나 고용인으로 자처하는 이가 많은가요?”

답 “제 집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제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고, 제 집이 잘되기 위하여 힘드는 줄 모르고 일하듯이 제 나라를 위하여서 정성과 힘을 다하는 사람이 주인이라면, 우리 민족 중에는 주인이 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⁹²⁾

안창호는 애국의 의미를 군주 대신 국민 개인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의식으로 바꾸기는 했지만, 애국을 충군과 동일 선상에 놓기도 했

92) 이광수(2000), 앞의 책, 195, 221~222쪽.

다. 국권 피탈 이전에 한국은 군주가 통치하는 왕조국가였고, 충군과 애국은 동의어였다. 따라서 안창호는 입단 지원자에게 국가가 왜 망했냐고 물을 때 충군과 애국이 동의어였던 과거 정황에 걸맞게 충군이라는 용어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충군의식이 현실적 한계로 존재하는 한, 창가와 창가집 모두가 현실적 한계를 반영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건원절경축가>는 국권 피탈 이후의 『최신창가집』에도 실려있다. 『최신창가집』의 <건원절경축>은 『잡집』의 <건원절경축가>와는 4, 5절이 뒤바뀐 점 말고는 나머지 노랫말이 거의 똑같다.⁹³⁾ <건원절경축가> 못지 않게 충군의식을 담은 네 번째 <애국가>는 안창호 유품인 『구한말 애국창가집』에 <무궁화가>라고 명명되어 실려있다. 이는 안창호가 충군의식을 담은 애국가의 노랫말을 교육현장에서 배제시키기를 원했지만, 충군의식을 담은 창가들을 교육현장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⁹⁴⁾

93) 광성중학교 편(1996), 앞의 책, 115쪽.

94) 이 현실적 한계는 찬송가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1896년 9월 9일에 고종 황제의 탄신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창된 <황제탄신경축가(皇帝誕辰慶祝歌)>는 찬송가의 선율에 없어불렸으며, (이강숙 · 김춘미 · 민경찬, 『우리 양악 100년』, 현암사, 2001, 35쪽.) 안창호 유품인 『구한말 애국창가집』에도 <애국가>를 비롯한 여러 창가들에 찬송가 곡조를 없어부르라고 표기되어있다. 『잡집』에 실린 찬송가들인 <천군천사찬송>(박창식(연대미상), 앞의 책, 1쪽.), <목자가>(박창식(연대미상), 앞의 책, 1쪽.), <감동가>(박창식(연대미상), 앞의 책, 5쪽.), <추수가>(박창식(연대미상), 앞의 책, 7쪽.)도 예비용이 아니라 충군의식을 담은 창가들의 곡조 연습용으로 실렸다고 보인다. 근대에는 군주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용되지 않은 종교적 요소가 없었기에, 『잡집』의 찬송가들도 충군의식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힘들다.

4. 결론

본고는 지금까지 박창식 필사 『잡집』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박창식 필사 『잡집』은 박창식이 필사한 창가집으로서, 창가 외의 「두 번째 김원국 씨 연설」, 「세 번째 각종 문자유취」 같은 다른 기록들도 담고 있었다. 이 다른 기록들은 『잡집』이 개신 유행과 계몽주의에 기반해있으며, 『잡집』이 교과서적 기능을 갖추어 알려주었다. 『잡집』에 담긴 창가들의 노랫말들은 위 다른 기록들이 알려준 『잡집』의 성격을 증명시켜주었다. <행보가>, <군인가>는 『잡집』이 근대 학교의 군대식 교육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권학가>를 비롯한 창가들은 개인의 실력 양성을 지향하는 계몽주의 교육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잡집』은 영토의식과 충군의식을 담은 창가들도 실었는데, 이 창가들에서는 충군의식이 영토의식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잡집』이 필사된 연도는 아무리 늦어도 1910년으로 충군의식을 버릴 수 없는 시기였다. 그렇기에 『잡집』도 그 충군의식을 담은 창가들을 많이 담았으며, 이는 『잡집』에 실린 많은 <애국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애국가>들에 담긴 충군의식은 『잡집』이 편찬되던 시기의 현실적 한계였으며, 이 현실적 한계는 국권 피탈 이후의 창가집인 『최신창가집』이나 『구한말 애국창가집』에서도 드러난다.

본고는 『잡집』을 분석하면서, 『잡집』이 다른 창가집 및 신문과 연관되어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했다. 『잡집』은 박창식이 필사하고 편찬하기는 했지만, 박창식 혼자만의 취향을 충족시키는 개인소장용 창가집이 아니었다. 또한 『잡집』에 실린 창가들도 박창식 혼자만의 취향을 충족시키는 기호품이 아니었다. 『잡집』에 실린 창가들은 다른 창가집 및 신문에도 실리면서 당시 대중들에게 널리 가창되었고, 그러한 창가 가창 양상 속에서

박창식도 창가들을 수집하여 『잡집』을 필사하고 편찬했다. 그렇기에 『잡집』은 이 창가 가창 양상을 고려하며 분석되어야 한다.

『잡집』은 독창적이거나 특색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잡집』은 당시 사람들이 창가에게서 원하고 기대했던 계몽주의, 영토의식, 충군의식 등을 담고 있다. 즉 『잡집』은 혼자만의 취향이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과 시대정신을 담고 있으며, 『잡집』이 근대 국문 시가에서 가지는 지위도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잡집』의 필사자이자 편찬자인 박창식은 아직까지도 널리 알려지지 못한 계몽주의 지식인이다. 박창식이 요절했기에 박창식과 관련된 기록도 찾기 힘들며, 따라서 박창식에 관한 연구도 부진할 수 밖에 없다. 본고의 분석이 많이 미흡했지만, 본고가 그 부진한 연구 상황을 타개할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본고가 이 박창식 같은 계몽주의 지식인들이 근대 국문 시가를 어떻게 향유했는지까지도 알 수 있게 해주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공립신보』

『독립신문』

『동광』

『동아일보』

『삼천리』

『신한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사변록집요』

『시전통석』

『어제문집』

『엽팔백역전』

『장자』

『택당집』

광성중학교 편, 『최신창가집』, 등사본, 1914(국가보훈처 영인, 1996).

박창식, 『일기장』, 필사본, 1910.

박창식, 『잡집』, 필사본, 연대미상.

학부편집국, 『新訂尋常小學 券二』, 1896.

『독립유공자 공적 조서』

김준엽 · 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4, 청계연구소, 1986, 1~504쪽.

서경석 · 김진량 편, 『식민지 지식인의 개화 세상 유학기』, 태학사, 2005, 1~392쪽.

송방송, 『증보 한국음악통사』, 민속원, 2007, 1~982쪽.

이강숙 · 김준미 · 민경찬, 『우리 양악 100년』, 현암사, 2001, 1~439쪽.

이광수, 『도산 안창호』, 범우사, 2000, 1~337쪽.

이유선, 『韓國洋樂百年史』, 中央大學校 出版部, 1976, 1~391쪽.

임형택, 『옛 노래, 옛 사람들의 내면 풍경』, 소명출판, 2005, 1~352쪽.

장리욱, 『도산안창호(島山安昌浩)』, 태극출판사, 1969, 1~504쪽.

- 주요한, 『안도산전서(安島山全書)』, 삼중당, 1963, 1~917쪽.
-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친일인명사전』 2, 민족문제연구소, 2009, 1~967쪽.
- 구양근, 「독립군의 항일노래모음 『최신창가집』」, 『민족문제연구』 8, 민족문제연구소, 1995, 7~8쪽.
- 김순석, 「박은식의 대동교 설립운동」, 『국학연구』 4, 한국국학진흥원, 2004, 171~199쪽.
- 신용하, 「도산 유품 『구한말 애국창가집』 - 해제 -」, 『한국학보』 13, 일지사, 1987, 4212~4213쪽.
- 이민규, 「근대 시가에 나타난 국가 표상 변천 과정 - 애국가, 의병가사, 애국계몽가사, 항일가요 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17, 1~133쪽.
- 이유기, 「1910년대 하와이판 『애국가』에 대한 연구」, 『동악어문학』 51, 동악어문학회, 2008, 139~173쪽.
- 장유정, 「옛날 노래책에 빠지다 - 애국창가집, 『창가』(손봉호孫鳳鎬, 1910년 발행)의 해제」, 『근대서지』 7, 근대서지학회, 2013.
- 최재목, 「金源極을 통해서 본 1910년대 陽明學 이해의 특징」, 『양명학』 23, 한국양명학회, 2009, 149~186쪽.

ABSTRACT

Introduction and analysis of Jap-jip written by Park Chang Sik

Lee, Min-gyu*

This paper analyzed Park Chang Sik's Jap-jip. Jap-jip had the contents to educate the music theory by the dialogue, and also had function as the textbook.

By several songs, Jap-jip tried to cultivate military education and enlightenment education together. Jap-jip contains "Korean soul" to encourage territorial consciousness and "Gunwonjulgyungchookga" to promote a sense of loyalism. The five national anthems in this Jap-jip show that the loyalism is superior to the territorial consciousness.

Key Words Park Chang Sik, An Chang Ho, Daesung school, Jap-jip, Changga

논문투고일 : 2017.07.15

심사완료일 : 2017.08.08

게재확정일 : 2017.08.16

* Yonsei University Korean Literature